

1.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요?

아직 교회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교회가 설립될 때 성도들과 함께 의논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분립개척교회' 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세워질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의 제자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2.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우리의 가치는 '사람'입니다 _ 평신도를 훈련하는 교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한 사람 철학이 살아있는 교회
- 우리의 시작은 '소명'입니다 _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각자의 삶을 현장에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 우리의 표현은 '사랑'입니다 _ 사랑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와 이웃을 섬기며, 인격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교회
- 우리의 토대는 '진리'입니다 _ 말씀 중심의 성경적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 우리의 동력은 '소망'입니다 _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그날을 바라봄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입니다 _ 평신도가 없는 교회
자신의 약함과 주의 은혜를 자랑하며,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힘을 다해 수고하는 교회

3.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되나요?

장년예배는 9시와 11시 예배로 2번 드리지게 됩니다 (자모실 오픈)

	시간	장소		시간	장소
1부	am 9:00	10층 예배실	2부	am 11:00	10층 예배실

다음세대를 위한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등부	am 9:00	1008호	유초등부	am 11:00	1009호
유아유치	am 11:00	1010호	대학청년	pm 1:00	1002호



주일예배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에
합시다.



2017년 1월 1일(주일) 오전 11시 드림센터 10층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1:28~29)

환영합니다

<~답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답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답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뉘는다>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뉘아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답다>라는 말은 <다르다>는 표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결과는 '다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환영합니다

1. 환영합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기도후원자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교회소식과
 기도제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헌신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헌신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첫 섬김과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선교분과를 통해서 농어촌미자립교회 1교회를 추천받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4.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척을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교회가 감사의 마음으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5. 온라인헌금안내 & 홈페이지 안내

농협 302-1146-4723-91 김성원 / 홈페이지: wooriorg.cafe24.com

하나님은 예측불허하시다.

1. 청년부 시절, "하나님은 ○○○○이다."에 무엇을 넣을지 각자의 생각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저는 빈칸에 "예측불허"를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늘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예측불허 하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 초만해도 이맘 때 교회 개척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2. 사실 처음 개척을 준비할 때만해도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연히 첫발을 내디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없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 같습니다.

3.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만드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나를 믿으라"고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숨기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때가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순간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불확실해지는 현실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더욱 확실해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말입니다.

4. 결국 불확실해 보이는 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불확실해 보였던 지난 시간들을 통해 주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맞본 하나님의 선하심은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 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만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오랫동안 알려 지내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더욱 깊게 만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5. 요즈음은 우리 인생에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선택권이 많을 때는 복잡해지는데, 선택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오히려 삶이 단순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 인생에 나타나실 것이고, 언젠가 예측불허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6. 남은 생도 하나님 앞에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기를, 점점 확실해 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